

북구의회 ‘특별장학생’ 추천권 특혜 논란

광주 북구 장학회에서 매년 진행되는 장학생 선발을 놓고 북구의회 일부 의원들 간 ‘나눠먹기’ 관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북구의회 몫으로 주어질 ‘특별장학생’ 추천권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과 논의나 상의 없이 독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제25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장학생 추천권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소재섭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북구 장학회 장학생 선발과 관련 북구의회 몫

으로 일정 비율 추천권이 있지만, 의장단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이 추천권이 있는지도 모른 상태”라며 “특별장학생의 경우 북구 장학회에서 추천기관을 선정해 일정 비율을 나눠 추천권을 부여하지만, 북구의회에서는 의장단들끼리 짬짬이로 추천하고, 다른 의원들과 일체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어 “작년에는 고점례 북구의회 의장이 특별장학생 2명을 추천했고, 올해는 주순일 부의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안전도시위원회위원장 등 4명에서만

장학생을 추천했다”며 “일부 의원들만 서로 공유하고 추천하는 방식은 나중에 서라도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 등 또 다른 시비를 낳을 수 있다. 구성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장학생을 공정한 방식으로 추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도 “소 의원이 행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을 듣고 북구의회에서 특별장학생 추천을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며 “의회 몫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북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설립된 북구 장학회는 지역사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2008년부터 장학생 선발을 시작했다.

선발 방식은 ‘신정장학생’과 ‘추천장학생(특기장학생·특별장학생)’으로 나뉜다. 특별장학생은 장애인, 다문화, 자원봉사센터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추천기관에서 소년·소녀가장, 효행, 장애인 등을 추천하게 된다.

지난 2009년부터 북구의회에서는 매년 2명씩 특별장학생 추천을 해왔고, 올해는 북구 장학회 이사회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특별장학생 비율을 기존 10%에서 15% 상향함으로써 의회 추천권 몫이 4명으로 늘었다.

의장단 등 일부 의원만 추천권 독식 지적 제기
전체의원들과 논의 없이 ‘나눠 먹기’ 관행 비판

하지만, 북구의회에서는 특별장학생을 추천한 의원에 대한 문서상 기록과 회의록도 없는데다 그동안 의장이 추천해왔던 관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고점례 의장은 “그동안 북구의회 몫으로 2명씩 의장이 특별장학생을 추천해왔다”며 “올해는 4명으로 늘다 보니 고생한 의장단에게 추천을 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다른 의원들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오해소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장의 진두지휘 하에 이뤄지고 있는 특별장학생 추천이

‘일부 의원 추천권 소유’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우수인재 육성,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목적 아래 시작한 장학회 사업 또한 본래 취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장학생 사업에 대해 홍보도 하고 내부적으로도 공정하게 장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명확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북구장학회 41호 장학생 선발은 지난달 29일 장학회 이사회에서의 결재였으며, 2일 공고될 예정이다. /최환준기자



불타는 공사차량 1일 오전 3시30분께 화순군 동면 공사현장 한 차고지에서 불이 나 콘크리트 믹서 등 도로포장 공사 차량 7대와 화물차 3대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화순소방서 제공

전남서 화재 잇따라 발생

나주 폐목재 공장 사흘째 진압...화순 차고지 차량 10대 전소

지난달 29일 나주 폐목재 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사흘째 이어졌다.

소방당국은 1일 오전 7시께부터 나주시 노안면 화재 발생 현장에서 소방차, 물탱크, 굴착기 등을 동원해 진압하고 있다.

119는 발화 지점 주변 가연 물질을 분리하고 이날 오전 2시께 철수했다가 날이 밝아지자 다시 진화에 나섰다.

소방 비상대응 1단계 조치는 해제했다.

오전부터 비가 내렸지만 목재 더미 속 불을 끌 만큼 강수량이 충분치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19는 헬기 등을 동원해 전날 오후 6시께 큰불을 잡고 남은 불을 정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2천600t가량 폐목재가 쌓여

있으나 절반가량 분리해 현재까지 1천300t 정도 불에 탄 것 같다고 119는 추정했다.

1일 오전 3시30분께 화순군 동면 한 차고지에서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불은 콘크리트 믹서 등 도로포장 공사 차량 7대, 화물차 3대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119에 의해 진화됐다.

119가 출동했을 때 불은 이미 여러 차로 옮겨붙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차고지에 있던 차 12대 가운데 10대가 다 타 9억3천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화순=이병철기자
/나주=정종환기자

만취 운전자 수입차 들이받아

지난달 30일 오후 11시42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유흥가 도로에서 A(23)씨가 운전한 쏘나타 차량이 교차로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추돌사고를 당한 마세라티 차량은 사고의 여파로 인도로 돌진, 횡단보도 바로 옆 철제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연말과 주말을 맞아 거리에는 많은 행인이 있었지만, 마세라티 차량 운전자는 가벼운 상처를 입고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만취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음주사고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최환준기자

“문화상안, 안 돼” 국민청원 봇물

강제징용 피해 배상 ‘1+1+국민성금’ 반대 목소리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 문화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국민성금(α)’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봇물을 이루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강제징용 피해자 외면하는 문화상 안 백지화에 힘을 보태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1만여명이 동의했으며, 오는 28일 마감된다.

글을 게재한 청원자는 “현재 문화상 국회의장은 강제징용 해법이라며 1+1+α 안, 이른바 ‘문화상 안’이라는 것을 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구체적으로 일본과 한국 기업의 기부금과 양국 국민의 성금,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화해치유재단의 잔여금을 합쳐서 기금을 만들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받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은 터무니없다”며 “2015 한일 합의보다 훨씬 후퇴한 것이며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 분들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인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화해치유재단 잔여금을 포함시키자는 건 가해국인 일본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거나 다름없는데다 2015년 합의 때 벌어진 피해자분들의 상처를 다시 벌리고 소금을 뿌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한국의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도 가해

자는 이를 외면하며 가만히 있는 상황이다”고 분개했다.

청원자는 이어 “피해자들은 그저 돈 몇 톨을 받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이어오지 않았다”며 “피해자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이며, 국회의장은 한국의 논리를 따라야지 일본의 논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문화상 안’을 당장 백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의장은 현재 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기억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1천500명에게 3천억원의 위자료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최환준기자

“벤츠 싸게 살 수 있다”...중개인에 속아 피해자 속출

억대에 이르는 수입 승용차를 싸게 살 수 있다고 약속한 중개인이 돈만 쥔 채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관련 피해자 10여명에게서 사기 등 혐의를 적시한 고소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1억원이 훌쩍 넘는 벤츠 승용차를 수천만원에 싸게 살 수 있다는 중개인 A씨에게 속아 공식 판매점을 직접 거치지 않고 구매 절차를 밟았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계약금을 결제하고 잔금 성격으로 추가 대금까지 전달했는데 약속한 날짜에 차를 받지 못했다.

벤츠 차량 영업 자격이 없는 A씨는 구매자 몰래 약속한 할인가가 아닌 정상 가격으로 공식 판매점과 차 구매 계약을

맺었다. 서울 공식 판매점 소속 영업사원이 규정을 어기고 실구매자가 아닌 중개인 A씨와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점은 잔금을 완납하지 않아 차를 출고하지 않았고, A씨가 중간에서 가로챈 돈은 수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리스 계약까지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 판매점은 중개인과 거래한 영업사원을 해고했다. 계약금 환불 여부 등 후속 조치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정할 방침이다.

/김동수기자

“귀엽다고 뺨을 때려(?)”

○...말을 거칠게 한 다며 훈계하다 중학생의 뺨을 때린 40대가 경찰서행.

○...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47)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서구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B(15)군의 뺨

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친구들과 비속어를 섞어 말하는 B군에게 “욕을 하지마라”, “말버릇이 없다” 등의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줄곧 “귀여워서 그랬다”고 진술하지만, 조카 같은 중학생을 어른답게 타이르지는 못할망정 손지검을 하던 쓰겠냐”고 한소리.

/김동수기자

광주의 자랑

최고의 차량과 최상의 서비스

28석 무등, 45인승 80여대 보유

〈관광, 예식, 회사 워크숍, 기업체 통근 차량, 예약상담 문의〉

에항고속관광

YEHYANG TOUR

(유)에항고속관광 (전세버스, 여행사)
홈페이지 : www.yh-bus.com
전화 : 062-944-5775 팩스 : 062-944-5995

기업 채용예정자 모집

<http://www.honam.or.kr>

2020학년도 **전액무료 훈련**

2월 중 개강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스마트자동화제어

금속재료용접(특수용접)

자동차부품조립 및 관리

타일+조적·미장 / 타일 (주말, 야간반)

제품디자인(3D 프린팅)

전기공사(내선공사)

한식·양식·중식·일식

제과·제빵·바리스타 / 네일·메이크업·피부

무료취업알선, 구인구직자모집(062-369-1829)

※ 훈련과정은 규정에 의해 과정명과 개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도 견학 및 접수 가능!!

광주공동훈련센터 (재)호남직업전문학교

상담문의 605-8000